

장성 삼계고, 병영체험학습 통해 안보의식 정립 계기 마련

상무대와 육군3사관학교 방문해, 병영체험학습 실시 역사관 견학·장비체험 통해 진로 탐색하는 시간 가져

장성 삼계고등학교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상무대와 육군3사관학교에서 병영체험 학습을 실시하여, 전교생과 교직원 이 투철한 국가관으로 호국 안보의식을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상무대는 장성군에 위치한 대한민국 국군의 아시아 최대규모로 보병, 포병, 기갑, 화학, 공병 5개 육군 병과학교로 구성된 대한민국 육군의 군사 교육시설이다.

한편, 경북 영천에 위치한 육군3사관학교는 조국·명예·충용 핵심가치를 구현하며, 전승을 주도할 아전 임무수행능력과 군사전문가의 기본소양을 갖춘 정예장교 양성을 목표로 하는 장교 양성기관이다.

삼계고등학교 학생들은 상무대 내 육군공병학교에서 입소식을 시작으로 육군 공병병과의 소개, 역사관 견학, 장비체험을 통해 진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육군3사관학교를 방문하여 학교 소개, 역사관 견학을 하였으며 육군3사관학교에 위치한 군 환경연구소도 방문하였다. 군 환경연구소에서는 실험실을 체험하고 환경문제를 개선·발전시켜 환경안보를 선도하는 녹색육군이 되기 위한 청사진을 확인하였으며, 더불어 학교생활을 하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스스로 활동하고 행동해야 할 내용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체험학습 3일차에 나동강 전승기념관을

방문한 학생들은 6·25 전쟁 당시의 나동강 방어전선의 치열한 전투를 눈으로 확인하고 각종 VR체험을 통해 군 간부로서 가져야 하는 국가관과 안보관을 확립하고, 직업군인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면서 미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나라사랑 계몽대 현장체험학습을 마친 2학년 고지안 학생은 "병영체험학습을 통해 현재와 미래의 군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6·25전쟁 당시에 열악한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목숨을 바쳐 싸우셨던 선배 전우들에게 위대함과 감사함을 느꼈으며, 이를 본받아 위국헌신 군인본분(爲國獻身 軍人本分)의 정신으로 우수한 정예부사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형주 교장은 "이번 병영체험학습을 통해 전교생들이 국가수호를 위한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확립하고, 더불어 환경의식을 깨우쳐 나라사랑 정신을 가질 수 있는 계기



가 되었다."며 "대한민국 최초 부사관과 삼계고등학교는 앞으로도 선진 정예간부로서 갖추어야 할 인성과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교

육하고, 현장 맞춤형 실무교육을 통해 정예 부사관을 양성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성=김수권기자

전남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 '2023. 감성자극 문화공연' 운영



관내 12개 유치원 330여명 어린이 참여

전라남도교육청학생교육문화회관은 지난 11일 '2023. 감성자극 문화공연'을 운영했다. 여수 관내 12개 유치원(총 334명)이 참여한 이번 공연은 동물 친구들이 용기를 가지고 함께 사냥꾼을 물리치는 내용으로 마치 어린이들이 공연 속 주인공이 된 듯 큰 호응을 이끌어 내며, 공연 내내 아이들의 환호와 열기로 가

득했다. 올해 총 세 번에 걸쳐 진행한 감성자극 인형극 공연은 관내 38개 기관 950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높은 호응도를 보이며 회관이 어린이들의 문화예술 배움터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큰 몫을 했다. 서선욱기자

나주 영강초, '교육활동 공개의 날' 운영



나주 영강초등학교는 지난 7일 2023학년도 2학기 학교교육활동 공개의 날을 운영하며, 학

교 문을 활짝 열었다. 이날 교육활동 공개의 날은 학부모 참관 수업공개와 학부모교육, 맛있고 영양 만점인 급식공개까지 이루어졌다. 특히 「우리 아이에게 맞는 양육과 훈련」이라는 주제로 열린 학부모 교육을 통해,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제대로 읽고 아이와 소통하며 부모로서 중심을 잡고 격려와 지지를 보낼 수 있는 마음을 다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나주=송준표기자

완도 보길초, 공감·소통 활동 통한 'HOPE 가족캠프' 운영

학교 교육의 신뢰 구축과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 목적으로 마련

완도 보길초등학교는 지난 7일 학교 교육의 신뢰 구축과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을 목적으로 교육가족이 함께 공감·소통하는 HOPE 가족캠프를 운영하였다. 이번 행사는 보길초등학교학부모회, 전라남도청의용합교육원과 함께 가족과 함께하는 저녁식사, 보물찾기, LED 슈팅플라이 날리기, 체력관측 등의 활동들로 진행되었다.

사회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많은 시기에 학생, 학부모, 학교가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면 교육가족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보길초등학교학부모회(회장 전기영)에서 이번 활동

의 준비 단계에서 실행까지 학교와 함께 했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이날 오후 5시부터 운동장에 돛자리가 하나둘 펼쳐지기 시작하더니 스물일곱 가족, 총 148명이 운동장 주변으로 둥글게 모여 앉아 함께 저녁 식사를 하였다. 각자 집에서 준비해 온 음식을 주위 사람들과 나눠 먹으며 오랜만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등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서 가족들이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식사 후에는 학부모회에서 준비한 보물찾기를 하였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도 '사랑', '우정', '배려' 등의 단어가 적힌 보물을 찾기 위해 뛰어다니는 모습



에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활동의 대미를 장식한 활동은 전체망원경으로 별을 관찰하는 활동이었다. 전라남도청의용합교육원의 도움을 받아 밤 7시부터 강당에 모여 천체망원경 사용법 교육을 받고, 이날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자리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화순교육청, 교육복지안전망 합동 캠페인

화순교육지원청은 지난 12일 화순제일중학교에서 교육복지안전망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사각지대 없는 학습돌봄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발굴하고자 교육복지안전망 구축사업을 홍보하고, 학생들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자살예방 메시지를 전달했다. 화순교육지원청 조영래 교육장은 "촘촘한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가 협업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하지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들이 없도록 지역사회와 함께 관심을 기울이고 힘쓰겠



다"고 말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교육복지안전망 네트워크 협의회 ▲화순교육지원청 ▲화순경찰서 ▲화순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화순제일중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했다. 화순=박순철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